

14면에서 받음

그렇게 변화를 겪어갔습니다. 다시 우기가 찾아들 무렵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어딘가 가자는 듯 잡아끌었습니다. 더 이상 수레를 탈 필요는 없었어요. 나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고,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뭍 수도 있었으니까요. 키가 자랐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 다. 좀 커져도 여전히 난 원숭이였으니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왕궁터 옆 사원이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던 헤가 한 뼘쯤 기울어졌을 때 마을 창고에서 보았던 백발노인과 등 굽은 소녀가 나타났습니 다. 뒤로는 청년들이 연꽃색 비단으로 꾸게 한 불상을 수레로 나르고 있었습니 다. 그 날은 사원에 불상을 새로 안치하고 점안의 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스님 두 분이 불상 내부에 시리와 불상 조성기, 발원문 경전 등을 봉안했습니다. 반점대 역할을 하는 연좌대에 불상을 안치한 뒤 점멸 순간이 도래하자 불상은 생명을 얻어 자비의 숨결을 내쉬었습니다.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할아버지와 불모(佛母) 백발노인은 불상 앞에 여러 번 절했습니다. 등 굽은 소녀도 뒤에서 구경하고 있더군요. 나는 까치발을 든 소녀 뒤로 다가갔습니 다. 소녀보다 작은 나는 몸을 구부리고 사람들 다리 사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패배자가 굴복하듯 한 쪽 무릎을 땅에 찍고 손으로 바닥을 짚은 뒤 나머지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습니다. 올라갈 때도 바닥에 먼저 손을 짚고 엉덩이를 빼 올리며 무릎을 꿇습니 다. 이를 악문 채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눈을 꼭 감고 중얼거리를 반복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아이의 명복을 빌었을까요?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뛰쳐나가 그만 하라고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잔인한 고통이 내 두 다리에 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모습을 조각하겠다고 결심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 다. 절하는 조각을 부처님 앞에 놓아드려야겠다고요. 할아버지에게 헤드본 건 그것뿐이더군요. 그 때 소녀가 돌아서면서 옹크리고 있던 나의 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찼을 소녀와 나의 얼굴이 마주쳤습니 다. 소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자 오른쪽 눈 밑에 양증맞은 보조개가 패지 않았어요? 키요마의 눈 밑 상처처럼요.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소녀는 얼굴이 빨개져 손살같이 불당 뒤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원숭이인 걸 알 텐데, 꼭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건강한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 다. 신선함과 고통을 동시에 표현해 낼 최상의 나무를 찾아야했습니다. 숲에는 흑단나무, 향나무 등 건강한 나무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헤매다 양지바른 곳에서 해의 기운을 받고 서있는 늙은한 느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저거다. 싶었어요. 양(陽)에 서 자란 나무는 조각도가 미끄러지도록 길을 내주지만, 음(陰)에서 자란 나무는 칼을 물고 놔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느티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조각상 전체에 아우라를 펼쳐 보일 테지요. 나는 큰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 다. 나무를 베는 것만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실물 크기로 나무를 다듬기까지 또 여러 날이 흘렀습니 다. 적당한 토굴을 찾아 나무를 옮겨 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조각도구들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작업을 해내고 싶었으니까요.

해 뜨면 숲으로 향하고 해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드린 후 꼭자귀와 원도(圓刀), 망치를 이용해 결번을 쪼아냈습니 다. 검목치기는 고된 작업이지만 조각할수록 힘이 솟았습니다. 분명 외형과 내면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점점 곧아지고 꼭자귀를 쥔 손가락에 탄탄한 안정감이 들었지요. 나는 그저 힘든 작업을 하니 강해지는구나, 서서 작업을 하니 다리가 펴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매일 사라지는 나를 보며 할아버지는 걱정 이 되었나봅니다. 어느 날 아침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 어디…… 사념……. 귀구나…….”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화가 익는 계절이 네 번 지났다는 이야기 같기도 했고 내가 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역격 귀까?”

‘격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대답이 최선이었지요.

견목작업을 끝내고 끝질을 시작했습니다. 평도

(平刀)를 이용하여 등 같은 넓고 평평한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지루한 여정이었어요. 대장간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 다. 조각은 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수양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질이 지나고 속을 파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무는 베어내도 숨을 쉽니 다. 마르고 습기 머금은 과정을 반복하지요. 마를 때 금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탁 센티 두께만 남기고 안을 파내었습니다. 마지막 세목 작업이 남았습니다. 잔결질을 하기 위해 창칼을 들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작업이었지요. 영혼이 실리자 칼은 스스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두손 가득 파묻은 할아버지 얼굴에서 눈물방울이 흘렀습니 다.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는 옷자락이 움직거렸습니다. 다리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고난의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발뒤꿈치 갈라진 협곡을 내 눈물로 채웠습니 다. 우아한 느티나무 나뭇결이 더해서 정맥은 파르라니 부풀어 오르고 옷자락은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대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땅을 디뎠던 거친 발은 이미 대지와 하나가 되어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평갈을 들었습니다. 기념품 조각가들처럼 사포로 대충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거칠다 느껴지면 정성스레 평갈로 밀었습니다. 내 손가락에 오이가 박히는 만큼 할아버지 몸은 점점 매끈해져

록한 과일썩어 같은 것도 튀어나와 있더군요. 그 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얼굴에 빗방울이 튀며 순식간에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일여서 내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사람 같다고 하기에 등이 굽었고 원숭이 같다고 하기에 다리가 곧았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떨렁거리는 살덩이도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꼬리만은 여전히 내 마음가는대로 움직여주더군요. 이것이 죽음의 징조일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선 모습이 절망스러웠지만 어찌되었든 이대로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 밤 나는 몰래 대장간으로 숨어들어 할아버지의 옷을 가져다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끌고 와 조각상을 실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할아버지를 부처님 앞에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안히 매일 기도드릴 수 있다면 이까지 몸 어찌되던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처님 앞에 할아버지 조각상을 바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아시라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셨듯 부처님도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요.

사원에서 몰라나 그 새벽 다시 토굴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아리지 못할 시간들을 자고 깨기를 반복하며 토굴에 누



화가 김영화 삽화

워있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무리 속에서도 외로웠던 원숭이 시절,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 받던 순간들, 조각하는 작은 소녀를 보며 불붙은 갈망, 그리고 온 힘을 다 해 할아버지를 조각하던 시간들. 문득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해버린 내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알아보지 못할 수도 또는 알아본다 해도 너무 놀라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대신 조각상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가에서 얼굴과 몸을 정갈하게 씻고 햇살 속에 길을 나섰습니 다. 나를 키워준 태양에게, 꿈꾸게 해준 하늘에게, 태고적 남재를 실어다 준 바람에게,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못할 나그네 마음으로 태어나게 한 부처님에게도 원망 아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그러워지더군요.

어느 뜻 사원임구까지 이르렀습니 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의 점안 의식 행사 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궁금해 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 다. 허리춤에 고정된 꼬리가 빠져나와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당 근처로 가까 지 줄이 보이더군요. 사람들은 나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용기 내어 할아버지 조각상을 걸어 올라갔습니 다. 세상에! 줄은 부처님에게 절을 하기 위한 줄이었어요.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절 하고는 이내 옆에 엎드려 있는 할아버지 조각상으로 갔습니 다. 불편한 다리로 엉덩이를 치켜 올린 채 엉거주춤 엎드린 조각상 앞에서 할아버지의 종

아리와 갈라진 발꿈치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부처님의 축복이 그들의 손을 통해 할아버지에게 모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 세상과 내가 순식간에 붙어버린 느낌이었고 할까요? 밀어내기만 하던 모든 생명들이 한 순간에 나를 껴안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수용된다는 것, 그리고 연결된다는 것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느꼈습니 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살고 싶구나. 마음을 표현하고 같은 감정을 나누며 살고 싶구나. 진정 원했던 것은 그런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자구의 자전축이 바뀐 듯한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뒤돌아 조용히 사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물가에 처음 얼굴을 비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 다. 낯설, 두려움, 그러나 비로소 존재가 명징하게 형상화되던 느낌. 어찌면 사람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거라고, 나를 비춰주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굴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 다. 조각칼을 든 순간부터 내게 찾아온 변화들에 대해서요. 이런 죽음의 징조가 아닐 거라 생각 들더군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흔들거리는 꼬리는 여전히 너는 원숭이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품안

그녀의 실루엣을 타고 광채가 퍼져나갔습니 다. 입을 열려는 순간, 키요마와 내가 원숭이였을 때 우린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 지금 내 모습이 예전 원숭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녀를 무어라 부를지 알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알아보는 것 같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원숭이, 같이 조각상을 감상하던 그 원숭이가 나라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옷 속에서 꼬리를 꺼내 곧게 세웠습니 다. 그녀가 키요마라면 끝이 흰 내 꼬리를 알아보겠지요.

“…….”

침을 꿀꺽 삼켰을 뿐 그냐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왓자지껄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나는 버릇대로 꼬리를 휘두르며 우왕좌왕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마동도 없던 그녀가 순식간에 내 손을 낚아채어 자신의 방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방문을 닫았습니다.

“스승님. 누가 그 조각상을 만든 걸까요? 이번 달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실린다는군요.”

“그렇만하지. 사실 나도 몹시 충격 받았으니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작품일걸세.”

소녀는 조각 장인과 일행들에게 차를 내주고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그러니 내가 숨어있는 방을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나는 한참 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 다. 이대로 벗어나면 원숭이 인간은 오직 나뿐인 것이 되니까요.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원숭이도 사람도 아닌 제 3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답답해하며 창문을 넘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토굴로 돌아오는 길에 왜 꼬리만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생각 들더군요. 기다리면 꼬리도 사라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걸까? 한동안 꼬리가 사라지길 바라며 지켜보았지만 꼬리는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섬리의 속내는 알 수가 없더군요. 현상이 벌어지면 그저 치열하게 사유하고 무작정 살아내는 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알 수 없는 진실 앞에는 진실을 대하는 자세만이 남는 거라 생각 들더군요. 믿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각하던 소녀는 나의 원숭이 친구 그냐라고. 세상에는 그녀와 나 외에도 수많은 꼬리 달린 인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저 그녀가 보여준 호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보다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나 하나 살기 위한 자기기만이든 상관없습니 다. 역사는 돌연변이들의 기록이고 그 한변에 원숭이도, 인간도, 원숭이 인간도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니까요. 소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키요마. 좋은 어머니 키요마. 내 친구 키요마. 그녀가 언제나 원숭이 인간의 고통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그날 밤 나는 꿈 한 번 꾸지 않고 단잠을 잤습니 다. 모든 원숭이 인간을 위해 빛을 쏘아 올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다음 날 곁에 단장하고, 꼬리를 뺏아 세운 채 사원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조각상 앞에서 축복하는 부처님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 때까지 쏠아졌던 찬사는 원숭이 늙은 장난질로 폄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을 찾던 신도들이 발길을 툭 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황스럽더군요. 파툰이 비춰주던 거울이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다니요. 모래성이 한순간 무너지듯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조각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등도 곧게 펴지더군요. 내 작품에 스스로 만족할수록 성대와 구강구조가 정교해졌어요. 그러자 곧 말이 터지더군요. 글도 배웠고요. 돌연변이에 대한 책을 계속해서 찾아 읽었습니다. 내면에서 기인하는 흔들림 없는 자아상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정부 기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은 당신이 신문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내가 걸은 진화의 역사입니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횡단의 역사지요. 꼬리를 밝힌 것에 후회는 없어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받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나라는 별 사이에 1.4%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거리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 당신들이 진화를 바라다면 더 이상 다윈의 진화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서로를 가능성의 열린 존재로 바라보며 횡단과 진화가 동등하게 교차할 때 말 그대로 세계는 진화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미래는 나와 같은 원숭이 인간이 더 번성해야 한다고 믿습니 다. 이것이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건넨 이유입니다.

〈당선소산·심사평 17면〉